

올리볼리 문화다양성 교육 교안 2

작성	모두협동조합	교육과정	다문화교육	학생수	
일시		교육대상	5-6학년	차시	-
관련동화	아홉 개 반의 손가락 (티베트)	주제	세상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		
학습목표	1. 장애를 가진 사람의 마음을 이해 할 수 있다. 2. 티베트 동화 '아홉 개 반의 손가락'을 듣고 함께 사는 세상에 대해 생각을 말할 수 있다.				
준비물	기관	색연필, 도화지 개인당 1장씩			
	강사	아홉 개 반의 손가락 올리볼리 그림동화, 보이지 않는다면 그림책, 안대			
단계	시간	수업활동 및 내용			준비물 및 유의할 점
도입 단계	20분	<p> ♪ 마음열기 (우리 반만의 구호 만들어 외치기 : 선생님이 예!! 하고 외치면 모두 요~~하고 신나게 대답하기) (출석부르기 : 눈을 바라보고 학생과 교감을 나누면서 한 명, 한 명 눈인사를 나눈다) </p> <p> ♪ 그림책 읽기 교사 : (그림책을 들려주며) 여러분, 오늘은 나와 다른 신체를 가진 사람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거예요. 먼저 책 한 권을 함께 읽을까요? 자, 책 표지를 볼까요? 뭐가 보여요? </p> 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">  </div>			<p>* 학습자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아이들이 직접 만든 구호로 인사한다.</p> <p>* '보이지 않는다면', 차이자오룬 지음, 심봉희 옮김, 응진주니어</p>

	<p>전개 15분</p>	<p>학생 : 손이 보여요/ 하얀 손이 보여요 교사 : 그렇지요? 어떤 제목이 어울릴 것 같아 요? 학생 : 검정책? / 하얀 손 교사 : 아, 그래요? 그럼 여러분 이야기가 맞 지 한 번 볼까요? '보이지 않는다' 이네요. 어때요? 만약 앞에 보이지 않는다면 어떤 기분 일 것 같아요? 학생 : 답답해요/ 재미없어요/ 속상해요</p> <div data-bbox="461 754 1096 1128"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"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시각 장애인은 볼 수 있는 사람들보다 어쩌면 더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. 눈이 아닌 다른 감각을 모두 동원해서,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놓치거나 무시해 버리는 것을 느끼고 상상하기 때문이지요. 이 책은 시각 장애인의 삶 가운데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키는 동시에, 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감시한지 일 깨워 줍니다. 또 보는 것이 소중한 것임을 알 뿐 아니라, 마음으로 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말 하고 있습니다. 보는 것을 나누고 함께 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책이며, 나누어야 행복할 수 있음을 말하는 책입니다. -이재필(한국장애인재단 이사장) • 이 책은 시각 장애인을 향한 막연한 동정이 아닌, 아름다운 공존의 방법을 어린이 스스로 깨닫게 합니 다. 어린이들이 이 책을 통해 볼 수 있음에 감사하고, 볼 수 없는 이웃들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으로 자라기를 바랍니다. -방민혜(서울 권역초등학교 교사) • 시각 장애인 체험은 정말 놀라운 경험입니다. 직가는 이 경험을 책 속에 멋지게 담아냈습니다. 이 책 을 읽으면 누구나 한 번쯤 보이지 않는 세상을 체험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전과는 다 른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. -황나유(대전 사범대학교 교수·교육학자) </div> <p>☞ 답답한 느낌 경험해 보기 교사 : 그럼 우리 한 번 경험해 볼까요? 자 두 명씩 짝을 지어보세요. 이제 안대를 하나씩 나눠 줄 꺼예요. 먼저 한쪽 친구가 눈을 가리고 색연 필로 자신의 손을 그려보세요. 학생 : 아, 잘 못 그리겠어요.</p> <p>교사 : 자 , 이번에는 받아쓰기예요. 선생님이 낱말을 칠판에 쓸 꺼예요. 귓속말로 눈을 가린 친구에게 말해주세요. 눈을 안 가린 학생 : (귓속말로 전달) 눈을 가린 학생 : 들은 말을 써 본다.</p> <p>교사 : 이제 반대로 해 보는 거예요. 잘 전달이 되었는지 눈을 가리고도 잘 썼는지 한 번 보세 요.</p>	<p>그림책</p>
--	---------------	---	------------

	<p>학생 : 잘 안 그려져요. 내 손 모양과 너무 달라요. 글씨도 이상해요</p> <p>교사 : 그래요. 이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을 것 같나요?</p> <p>학생 : 매우 답답할 것 같아요. /할 말도 못하니 슬플 것 같아요/ 사람들이 바보라고 놀릴 것 같아요.</p> <p>교사 : 안 보이게 되면 가장 두려운 것은 무엇일까요?</p> <p>학생 : 사람들의 이상하게 쳐다보는 것이 제일 슬퍼요/ 엄마아빠 얼굴도 못 보니 슬퍼요</p> <p>교사 : 그래요. 자신의 마음을 포스트잇에 써서 여기에 붙여주세요. (글을 모아 칠판의 한 쪽에 붙여둔다)</p>	
	<p>🌀 올리볼리 그림동화 읽기</p> <p>교사 : 자. 이번엔 서로 글자모양이 달라도 주제는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. 일단 그 나라의 언어로 한 번 들어볼까요? 어느 나라 동화 같나요?</p>  <p>학생 : 잘 모르겠어요.</p> <p>교사 : 자. 이번엔 한국어로 들어보세요.</p> <p>학생 : 아. 재미있네요.</p> <p>교사 : 여러분, 어느 나라 동화인지 알 수 있을 것 같나요?</p> <p>학생 : 네. 티벳이라고 말이 나왔어요.</p> <p>교사 : 그럼 티벳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한 번 같이 볼까요?</p>	<p>활동지</p>

		<p>(티벳에 대한 온라인 정보 등)</p> <p>교사 : 티벳의 종교와 기후, 그리고 이 동화의 주제를 한 번 같이 이야기 해보면 좋겠네요. 이 동화에서 손가락이 아홉 개 반밖에 없는 공주님은 요괴들에게서 풀려났을 때 어떤 마음이였을까요?</p> <p>학생 : 손가락이 없는 것도 때로는 좋을 수 있다는 것을 느꼈을 것 같아요.</p> <p>교사 : 나중에 하녀를 만나, 이야기를 듣고 나서 공주님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?</p> <p>학생 : 세상일은 모두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열린 마음을 가지게 되었어요.</p>	
정리	10분	<p>🌀 소감 나누기</p> <p>교사 : 오늘 중국 사람이 만든 한국어로 된 그림 책을 하나 읽었고, 또 티벳 사람이 만든 동화를 티벳어와 한국어로 들었어요.</p> <p>여러분 마음은 어땠어요. 장애를 가진 사람과 함께 사는 사회에서 그 분들의 마음은 어떨지에 대해서 한 번 포스트잇에 적어보면 좋을 것 같네요. 또, 여러분, 어떤 마음으로 같이 살고 싶나요? (칠판의 다른 한쪽에 붙인다)</p> <p>학생 : 그 분은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지 않으면, 마음이 매우 불편할 것 같아요.</p> <p>학생 : 그 분들도 열린 마음으로, 우리도 열린 마음으로 함께 살면 좋겠어요.</p> <p>🌀 수업마무리</p> <p>교사 : 오늘 여러분들이 한 이야기들을 왼쪽과 오른쪽 칠판에 붙여보았어요. 마음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알 수 있겠지요?</p> <p>우리는 이제 불쌍한 마음이 아닌 함께 사는 세</p>	

	<p>상이라는 열린 마음으로 살아가면 좋겠어요. 그럼 우리 반의 구호를 외치면 마무리 해보아요. (선생님이 예!!하고 외치면 모두 요~하고 신나게 대답하며 수업을 끝낸다)</p>	
--	---	--